

엄마의 방울소리

글 이용미(고양시 덕양구)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지 꽤 여러 날째다. 얼굴이 수척하고 기력이 없다.

애잔하고 애달프다.

신음소리를 내며 육신의 고통과 마주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안간힘을 내는 모습이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한다.

엄마를 보며 삶과 죽음의 의미심장함을 날마다 곱씹는다.

잘 살아야 하고 잘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두려운 생각이 든다.

파란만장한 질곡의 삶을 살아온 엄마! 우리 엄마는 지금 어디쯤을 서성이고 있는 걸까.

엄마와 함께한 수많은 날, 엄마와 함께 만든 수많은 추억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인내와 연민의 날들, 나 홀로 숨죽여 울던 눈물겨운 날들,

잠든 엄마 뺨에 얼굴을 비비며 나는 목이 멘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세상으로 하염없이 뚝뚝 떠나려간다. 친정 부모가 보고 싶다고

어린이처럼 운다. 나도 나중에 그렇게 울겠지.

오늘도 나는 마른 삭정이 같은 엄마 다리를 주무른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끝까지 잘해야 하는데.

엄마를 온 마음에 품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하여 끝까지 잘 돌봐야 하는데

나는 해낼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엄마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산을 옮기고 모든 걸 초월하게 만드니까. 나는 엄마 딸이니까.

평생 고생만 한 가여운 우리 엄마니까.

잘 할 수 있다고 날마다 매 순간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내가 엄마를 끝까지 모실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